

서 평 지

서평 제목	카프카의 변신이 주는 철학적 성찰: 불안과 실존적 주체성을 중심으로	참가번호	2024-28
도 서 명	변신: 단편집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p>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한날 벌레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를 통해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소외감을 절절하게 드러낸다. 그는 갑작스러운 변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감에 휩싸인다. 이러한 그레고르의 비극적인 삶은 단순한 허무주의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존재의 불안과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카프카의 <변신>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란 불안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우리가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레고르 역시 벌레로 변한 순간,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더 이상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잠식된다. 이는 마치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에 대한 각성'과도 같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는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이 어떻게 그에게 존재의 본질을 자각하도록 만드는지를 탐구해 보고, 그 과정에서 <변신>을 읽는 독자들이 매개체인 글을 통해 어떻게 실존적 주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지를 분석할 것이다.</p> <p>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겪는다고 말한다. 이 불안은 단순한 일상의 불안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심연 같은 불안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불안이 우리를 일상의 겉질에서 벗겨내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갑작스러운 변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을 경험한다. 벌레로 변하기 전,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의 존재는 사회적 역할과 가족의 기대에 의해 규정되었고, 그러한 틀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벌레로 변한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마치 익숙한 옷에서 벗겨진 듯, 자신의 존재를 낯설게 느끼며 깊은 불안에 빠져들고, 이 불안은 그를 일상의 안전한 틀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신의 존재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직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즉,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 <p>한편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인간은 본질적인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았으며 이 자유는 곧 '선택의 책임'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르의 변신은 그가 실존적 주체로서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변신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p>			

서평 제목	카프카의 변신이 주는 철학적 성찰: 불안과 실존적 주체성을 중심으로	참가번호	2024-28
<p>갈 수 없으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변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의해 길들여진 자신의 과거 삶에 계속 집착한다. 그는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 얽매인 채 자신을 규정한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 가족들의 시선은 그에게 압도적 영향을 미친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혐오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없다. 그레고르 역시 자신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그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지고 만다. 이 점에서 <변신>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주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규정될 때 겪는 파멸을 묘사한다.</p>			
<p>카프카의 <변신>은 단순히 그레고르의 비극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적 주체성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르트르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해우이 자체가 실존적 선택과 자각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글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지각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을 밝히고자 하는 주체의 ‘자유’의 소산이다.” 즉, 독자는 작품 속에서 제시된 인물들의 상황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변신>에서 독자들은 또한 그레고르의 수동적 태도와 그의 파멸을 목도하며 자신의 삶에서 실존적 선택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의 실패가 독자들로 하여금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선택’을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의 불안은 독자에게 이입되어, 독자들은 그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자유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즉 독자들은 실존적 주체성을 자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p>			
<p>카프카의 <변신>이 출간된 당시와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면에서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성과와 역할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개인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카프카의 <변신>은 이러한 사회적 규정과 요구 속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자유로운 주체’로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불안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선택을 통해 존재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한 ‘근본적인 불안’은 우리를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실존적 본질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결론적으로 카프카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텍스트에 내적 불안감의 표현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생명력을 얻게 된 글이 독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는 실존적 주체로 스스로를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비극적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적 선택과 자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철학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카프카의 <변신>은 불안과 실존적 주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p>			